



은행 (Positive)

3월 연체율: 추이를 잡아야 할 시점

▶ Analyst 김도하 doha.kim@hanwha.com 3772-7479

국내은행의 2025년 3월 말 연체율은 0.53%(+10bp YoY)로 상승했습니다. 이제 세세한 월별 변동보다는, 연체율이 다시 반락할 것인지 상승 속도를 더 가속할 것인지 추이를 잡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경기 부진이 연체율 상승기를 연장시킬 수는 있겠으나, 궁극적으로는 금리 하락에 의한 건전성 개선이 더 주효할 것이라는 판단을 유지합니다.

국내은행 3월 말 연체율 0.53%(+10bp YoY)로 상승

- 국내은행의 2025년 3월 말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연체 기준)은 0.53%(+10bp YoY)로 상승 (그림 1~6)
- 법인 중소기업 연체율은 0.80%(+19bp YoY), 자영업자 연체율은 0.71%(+17bp YoY)로, 전월보다 상승폭이 확대됨. 변동성이 높은 대기업 연체율은 0.11%(flat YoY)로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지속
- 가계 연체율도 0.41%(+4bp YoY)로 전월보다 확대된 상승폭을 기록. 신용 등 일반대출은 0.79%(+6bp YoY), 주택대출 연체율은 0.29%(+4bp YoY)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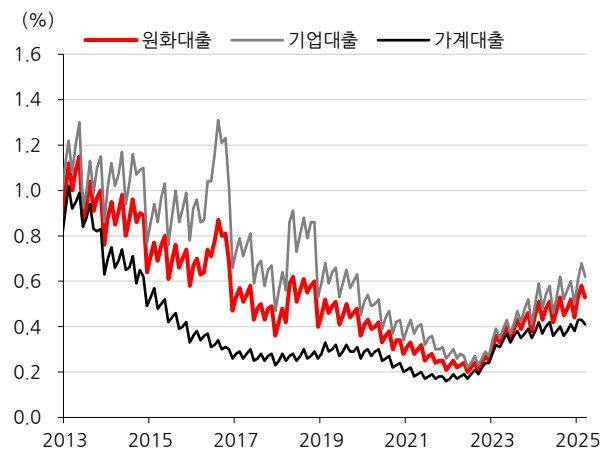
연체채권은 계속 두 자릿수 증가율 기록

- 은행업종 연체채권 잔액은 3월 말 12.5조원(+28% YoY)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산 (그림7)
- 3월 중 발생한 신규 연체 규모는 3.0조원으로 25% YoY 증가 (그림8). 반면 월 중 정리(상·매각)된 연체채권은 4.1조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0.1조원 감소 (그림9)
- 기업 (추정): 3월 말 기업 연체잔액은 +34% YoY로 추산. 법인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모두 연체 증가율이 재차 상승 (그림11)
- 가계 (추정): 3월 말 가계 연체잔액은 +15% YoY로 추산. 취급이 제한된 신용대 연체잔액은 한 자릿수 증가율을 유지한 반면, 주택대출의 연체는 전년 동월보다 20%대 증가. 당사가 염려하는 5년 고정금리 주택대출의 리프라이징 영향을 지속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그림11)

추이를 잡아야 할 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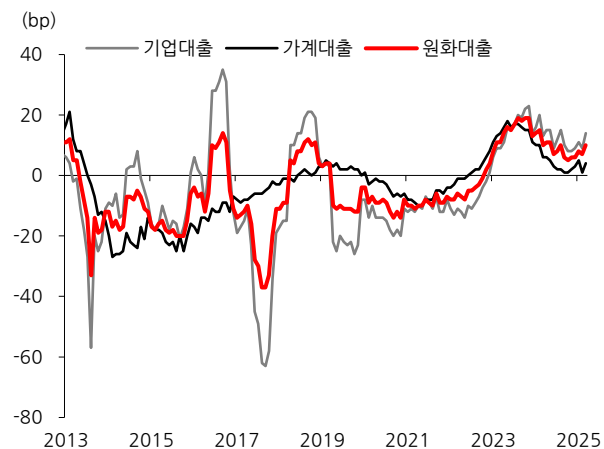
- 은행업종 연체율의 변동폭은 월 중 정리된 채권 규모에 따라 등락을 거듭하고 있음. 현황은 (1)연체율의 YoY 상승이 19개월째 지속되고 있고, (2)2023년 하반기를 정점으로 느려졌던 상승 속도가 2025년 들어 조금이나마 다시 빨라졌다는 것임
- 연체율이 추세적으로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때에는 고작 월 중 정리규모가 늘어나거나 줄어든다는 것으로 흐름이 바뀌지는 않음. 즉 현재는 연체율이 다시 반락하는 것도, 또는 상승 속도를 더 가속하는 것도 가능한 구간이라고 판단. 이제 세세한 월별 변동보다는 그 추이를 잡는 것이 중요한 시점으로 보임
- 단기적으로 경기 부진이 연체율의 상승기를 연장시킬 수 있겠으나, 궁극적으로는 금리 하락에 의한 개선의 힘이 더 주효할 것이라고 판단하며, 은행업종의 연체율 상승 추세는 2025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함
- 변수는 법인 기업의 연체채권 증가 속도와, 5년 전 취급된 고정형 주담대출의 연체율 추이가 될 것으로 전망

[그림1] 국내은행 차주별 연체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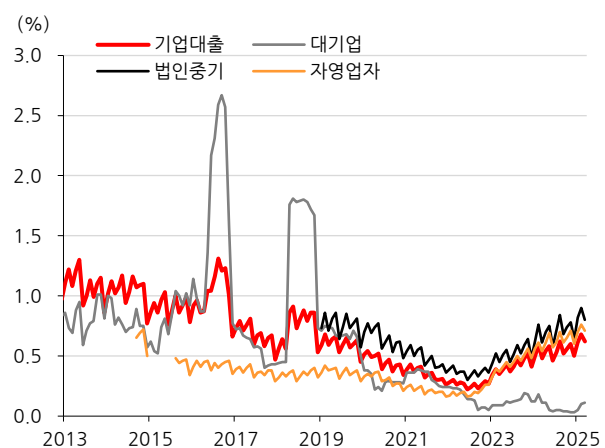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국내은행 차주별 연체율의 YoY 변동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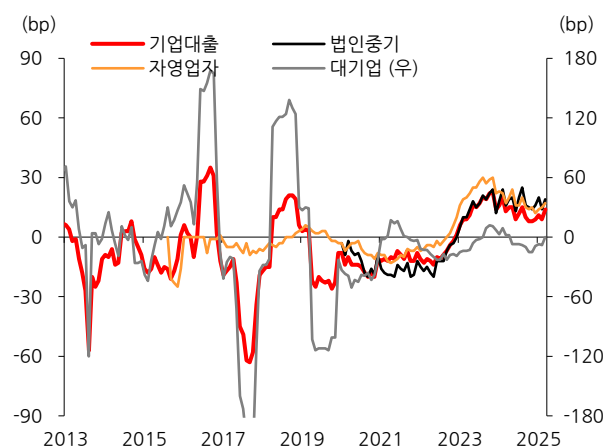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기업대출 연체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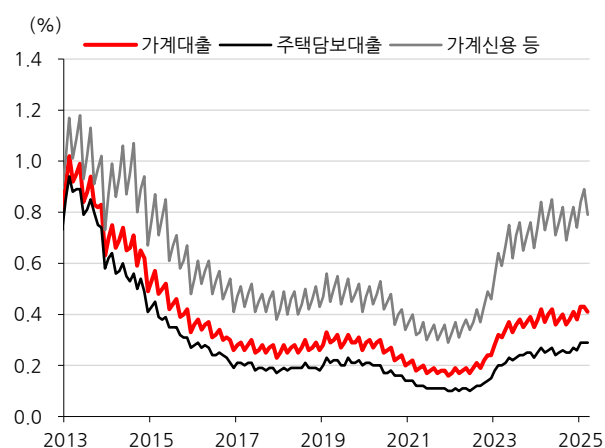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기업대출 연체율의 YoY 변동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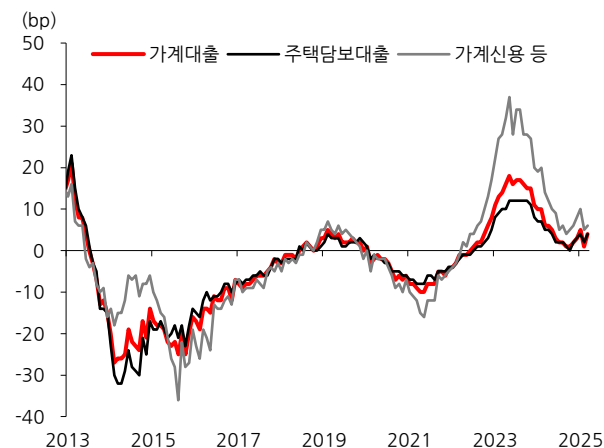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가계대출 연체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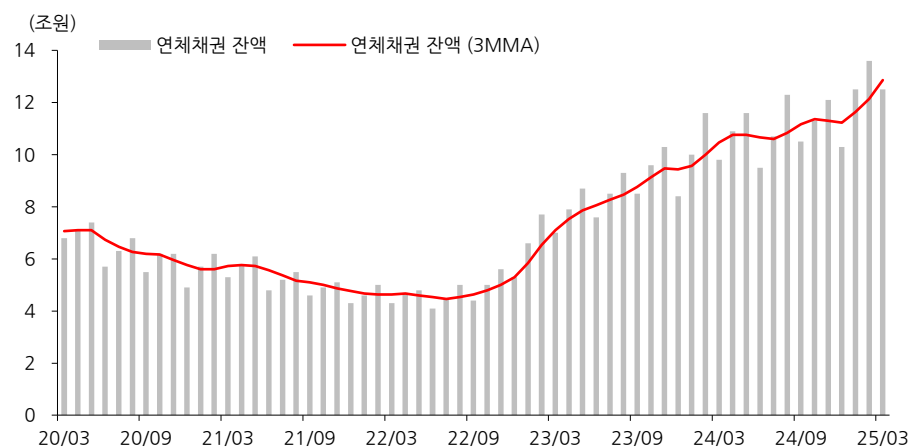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가계대출 연체율의 YoY 변동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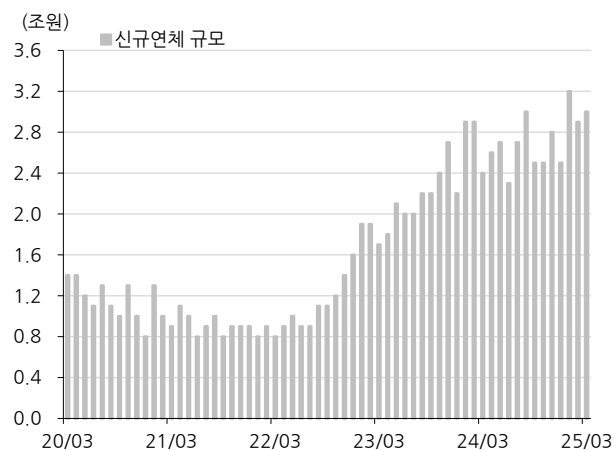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 국내은행 연체채권 잔액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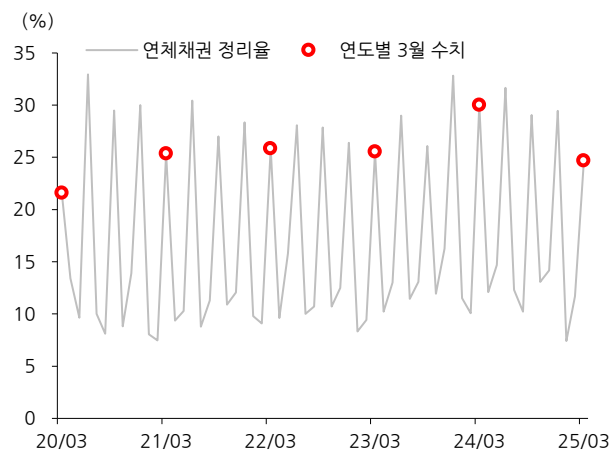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8] 국내은행 월 중 신규 연체 규모



자료: 금융감독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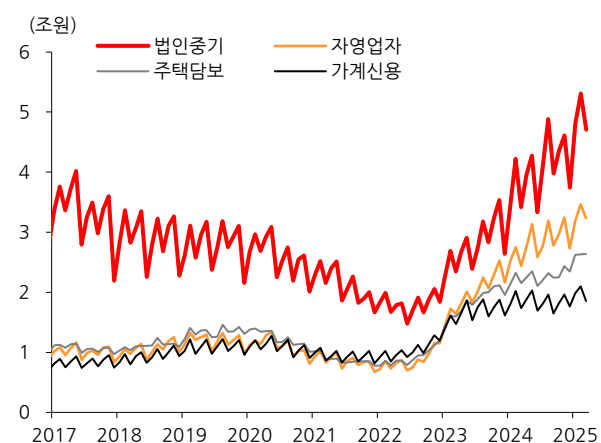
[그림9] 월 중 연체채권 정리율



주: 당월 정리 규모/(전월 연체잔액+당월 신규연체)의 비율로 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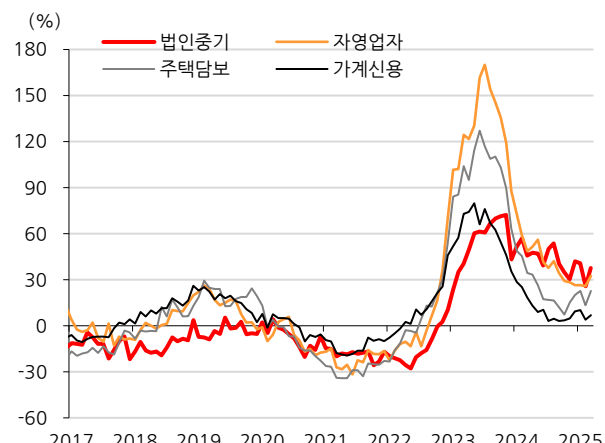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0] 차주별 연체채권 잔액 규모 (추정)



자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1] 차주별 연체채권 잔액의 YoY 증가율 (추정)



자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공표일: 2025년 5월 22일)

이 자료는 조사분석 담당자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작성하였으며,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했습니다. 본인은 이 자료에서 다룬 종목과 관련해 공표일 현재 관련 법규상 알려야 할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인은 이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김도하)
저희 회사는 공표일 현재 이 자료에서 다룬 종목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해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저작권이 당사에 있으며 불법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이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나 정보출처로부터 얻은 것이지만,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와 관련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종목 투자등급]

당사는 개별 종목에 대해 향후 1년간 +15% 이상의 절대수익률이 기대되는 종목에 대해 Buy(매수) 의견을 제시합니다. 또한 절대수익률 -15~+15%가 예상되는 종목에 대해 Hold(보유) 의견을, -15% 이하가 예상되는 종목에 대해 Sell(매도) 의견을 제시합니다. 밸류에이션 방법 등 절대수익률 산정은 개별 종목을 커버하는 애널리스트의 추정에 따르며, 목표주가 산정이나 투자의견 변경 주기는 종목별로 다릅니다.

[산업 투자의견]

당사는 산업에 대해 향후 1년간 해당 업종의 수익률이 과거 수익률에 비해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Positive(긍정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1년간 수익률이 과거 수익률과 유사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Neutral(중립적) 의견을, 과거 수익률보다 부진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Negative(부정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산업별 수익률 전망은 해당 산업 내 분석대상 종목들에 대한 담당 애널리스트의 분석과 판단에 따릅니다.

[당사 조사분석자료의 투자등급 부여 비중]

(기준일: 2025년 3월 31일)

투자등급	매수	중립	매도	합계
금융투자상품의 비중	90.9%	9.1%	0.0%	100.0%